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계시와 성경, 4차 세션, 신을 아는 것과 신학의 근원

© 2024 로버트 피터슨과 테드 힐드브란트

이것은 계시록과 성경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4, 신을 아는 것과 신학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교리, 신이 자신을 알리는 것, 그리고 특히 우리 과정의 가장 큰 부분인 성경 교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아버지, 당신의 창조물, 인간의 양심, 역사, 그리고 당신 아들의 성육신을 통한 특별 계시, 그리고 가장 특별히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바로잡아 주시고, 당신의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신학의 근원을 아는 것. 때때로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종교 개혁 개념이 오해받습니다.

종교 개혁은 솔라 스크립투라(sola scriptura), 솔라 그라티아(sola gratia),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은혜가 아닙니다. 솔라 피데이(sola fidei)는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더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행위는 중요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증거이자 증명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 믿음에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Sola scriptura, sola gratia, sola fidei, Solus Christus,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구원받으려면 그를 믿어야 합니다. So la Deo Gloria,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는 말은 때때로 성경이 우리의 신학에 사용하는 유일한 출처라는 의미로 오해받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히 성경을

공부할 때 이성을 사용하며,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는 좋은 나쁜든 우리의 경험에 영향을 받으며, 신학을 하는 동안 우리는 특정 전통에 서 있지만, 솔라 스크립투라는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출처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만이 우리의 주요 출처이며, 다른 출처를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방식은 우리의 목표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이성, 전통, 경험보다 성경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와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의 신학에서 성장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도록 강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학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출처가 있을까요?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는 네 가지 출처, 즉 성경, 전통, 이성, 경험에서 배웁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살펴보고 성경의 가르침, 즉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것들과 그 위치에 대해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위에서 성경 이야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모든 신학의 주요 출처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하게 영감을 받았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든 신앙과 실천에 대한 최고 권위입니다. 종교에서 권위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의 복종을 명령할 권리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신앙과 실천, 신학과 윤리에 대한 최고 권위라고 말합니다.

다른 모든 출처는 성경 아래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sola scriptura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다른 출처는 중요하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만 사용되며 가장 높은 기준인 성경에 의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솔라 스크립투라 교리입니다. 전통. 전통은 다른 기독교인들이 영원한 주제에 대해 말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신학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잠깐만요. 아니요, 저와 성령과 성경뿐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과정에 자신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성령과 성경만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인간 주체입니다. 당신은 성경을 연구하는 데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성,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여합니다.

인간이 공부하는 것 외에는 순수한 신학이란 없습니다. 다른 인간, 특히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견해를 갖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집어 들고 공부하는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앞서 갔고 우리에게 많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전통은 성경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가르침, 특히 신조와 고백 등에서의 관련이 있으며, 거짓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교리 문제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제공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컬트에 빠지게 하는 얼마나 유혹적인 일입니까. 저는 로마 가톨릭, 루터교, 개혁신교, 상징적 관점과 별개로 주님의 만찬을 연구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역사적인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만찬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이해를 향해 노력하면서 그것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성. 이성은 계시를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성은 개념, 질문, 관계, 주장을 명확히 합니다. 신을 아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며 믿음과 모든 정신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명확하게 생각하고, 거짓된 이분법을 거부하고, 관계 속의 진실을 보고, 시스템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성은 이러한 과제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정신, 이성 외에 신학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경험.

우리는 이런 일을 할 가능성이 적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의심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경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학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에 의해 형성됩니다.

우리가 특정한 신앙 경험, 교회적 맥락, 가족적 배경, 민족성, 문화, 성별, 삶의 상황을 통해 인식하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신학을 할 때, 경험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문화적 맥락에서 벗어나 문화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신을 믿거나 신을 의심하거나 신을 믿지 않는 방식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경험의 일부이며 확실히 우리가 신과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통, 이성, 경험은 좋고 의미 있는 출처입니다. 그들은 좋은 가이드이자 교사이지만 틀림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6-9를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11-21을 보십시오. 이성은 신비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3을 보십시오. 경험은 확인되지 않은 채로 둘 수 있습니다.

유다서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각각은 소중히 여겨져야 하며, 각각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각은 항상 교회, 이성 또는 경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나오는 성경에 의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 아래 서서 그 확언을 신뢰하고, 그 판단을 받아들이고,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신학에는 네 가지 근원이 있습니다. 다양한 전통에서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전통적으로, 바티칸 2세는 이를 실제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성경과 전통을 중시합니다.

그들은 둘 다 균형 있게 유지한다고 주장하지만, 복음주의 개신교도들에게는 거룩한 전통, 신성한 전통이 때때로 성경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연옥에 대한 가르침에서처럼,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이며, 그것은 로마 가톨릭 신학에서 성경보다 전통이 더 중요한 곳입니다. 연옥에 대한 전통적인 성경적 증거 본문은 좋은 증거 본문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전혀 좋은 증거 본문이 아니며 , 오늘날 일부 로마 가톨릭 주석가들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웨슬리안 전통은 성경, 전통, 이성, 경험의 균형을 추구하는 웨슬리안 사각형을 고수합니다. 저는 우리가 네 가지를 모두 사용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우리가 네 가지를 모두 사용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지지하지만, 그런 다음 우리의 생각, 전통 , 경험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성경에 종속시킵니다.

따라서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하거나 칼빈이 그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참이어야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칼빈, 루터, 웨슬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 교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하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프랜시스 셰퍼의 용어를 사용하는 데 합리적이지만 합리주의적이지는 않습니다.

합리주의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보다 이성을 전체보다 높이고 사상가가 사상가의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는 데 책임이 있지만, 확실히 우리는 합리적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사용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서 전통은 우리가 결론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결론을 교부들과 개혁가들, 개신교 정통파, 그리고 우리와 성경에 대한 높은 견해를 공유하는 현대 신학자들의 결론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으므로 전통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전통을 완전히 무시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역사의 실수와 오류를 반복하는 데 자신을 맡기고 있을 것입니다.

경험이 너무 큰 역할을 할 수 없나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생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의 교회 생활과 경험, 우리의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 그것들이 우리의 삶과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인정하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전통,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죄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말은, 아담이 우리 모두를 곤경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그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여기에는 두 가지 별도의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담의 원죄가 전통 신학이 말한 대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친다면, 당신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시키고 창세기 3장이 그 기회를 제공하고 구약이 그 효과를 보여주며, 바울이 로마서 5:12~21에서 한 사람의 한 죄가 어떻게 인간 세상에 죽음과 정죄를 가져왔는지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솔라 스크립투라는 성경만이 우리의 권위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다른 유효한 권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우리의 가장 높은 권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성경을 올바른 자리, 즉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이 더 낫습니다. 신과 우리의 신학적 방법, 신학에서의 우리의 과정을 아는 것은 어떨까요?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을 신학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면서 건전한 신학적 방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대안은 건전하지 못한 방법이거나, 우리가 방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실제로 그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는 방법이나 방법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더 나올까요? 다시 이성의 자리가 있고, 신학을 하는 것처럼 그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신학에서의 신학적 방법이나 과정에는 성경 주석, 성경 신학, 역사 신학, 다양한 학문, 체계 신학, 그리고 실천 신학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주해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소개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요소에는 기본적인 순서가 있지만, 각각은 불가피하게 다른 요소와 얽혀 있으며, 이것들과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학을 개발하는 과정에는 각각에 대한 관심이 포함되며, 우리는 이러한 접근 방식 각각을 다루지만, 수학 문제 순서는 아닙니다.

오케스트라의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각 영역은 우리의 신학을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성경 해석은 성경의 다양한 구절에 대한 해석을 다룹니다. 성경 신학은 우리가 창조, 타락, 구원, 완성을 따라가면서 성경의 이야기와 스토리라인을 추적합니다.

역사 신학은 성경 신학이 해석을 따르는 방식으로 그 두 가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생각, 즉 교회가 수세기에 걸쳐 성경과 그 가르침을 이해한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해석과 성경 신학에 직선으로 서 있지 않고 각도에서 접근하지만, 우리에게 관점을 제공하고, 과거의 좋은 결론에서 배우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른 학문 분야도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서 살펴보는 대로 언급하겠습니다. 체계 신학은 주해, 성경 신학, 역사 신학의 결과를 일관된 전체로 모아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의 형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가르침을 서로 관련시키려는 인간의 시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영원한 아들이 그의 성육신으로 인간이 되었고, 따라서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자 인간이 되었다고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계 신학에서 실천 신학은 물론 많은 분야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설교, 교육, 상담, 선교가 바로 떠오릅니다. 우리 모두는 신학적 신념을

포함하여 이전에 존재하고, 심지어 발전되지 않은 신념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회의론자들은 모든 해석 이 마치 우리의 현재 믿음이 우리의 연구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처럼 절망적으로 순환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해석과 신학이 해석자, 즉 이미 존재하는 신학을 가지고, 때로는 그에 맞춰 성경 본문을 읽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데 동의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깨끗한 슬레이트, 즉 타불라 라사, 즉 빈 슬레이트로 구절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과 신학을 읽을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우리 자신, 성경, 예수, 구원, 교회, 역사, 삶의 의미, 사물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관점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관점은 신학을 이해하는 데 유리한 지점으로서 많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백성, 악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 그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성경적 주제를 더 명확하게 보고 더 온전히 통합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은 종종 우리의 신학을 개선합니다. 여행 중에 겪는 투쟁으로 우리의 신학이 시험받으면서, 우리의 신학은 성숙해집니다.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언급은 제 동료였던 선교 교수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의 이름은 넬슨 제닝스였고, 그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중 하나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온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박해를 다루는 성경 구절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박해에 대해 그저 수다스럽고 단순한 말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그 가운데서 그 구절들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얻으려면, 우리는

교회 전체의 가르침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우리 자신과 동시에, 교회 전체의 가르침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역사적 신학이나 교리의 역사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점이 해석의 열쇠가 되도록 내버려두면 실수가 뒤따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이야기와 세계관에 의해 형성된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결함이 있습니다.

해석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인 외부인의 접근 방식은 종종 제국주의적이며, 가정된 신학에서 성경 본문을 비판하거나 그 본문을 가정된 이념에 맞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된 이념에서 본문을 해석하거나 본문을 자신의 이념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19편에서 겸손한 청취자로서 성경을 읽는 접근 방식과 반대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 온 마음을 다해 그의 명령에서 주님을 찾는 부지런한 추구자, 그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의 뜻을 따르고 그의 조언을 경청하는 충실한 종, 반대에 직면한 시험받은 여행자, 적대적인 세상에서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으로부터 절실히 지혜가 필요한 사람,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격려를 받고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당신의 법도를 선포하는 즐거운 예배자로서 내 노래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54절. 우리의 관점을 해석의 열쇠로 삼는 것은 또 다른 잠재적인 실수로 이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 자체와 과감하게 동일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진행 중인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학이 항상 건설 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으며 항상 개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이,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 글로리아 데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우리는 솔라 스크립투라로 시작했습니다. 원한다면, 우리는 후기 개혁 슬로건을 추가합니다.

Semper reformanda , 항상 개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학은 모든 세부 사항에서 결코 고정되지 않습니다. 오, 기초가 놓였고, 가톨릭, 즉 보편적이고 역사적인 교리가 합의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구절의 모든 해석이 동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새로운 빛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학은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하고 있으며 항상 개혁되고 있습니다.

셈 페르 리포르만다 , 신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견해를 우리의 성경적 해석으로 가져오지만, 이것이 회의주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우리의 길을 형성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지를 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나은 접근 방식은 이미 존재하는 신학적 가정을 인정하고 분별하고, 영의 깨달음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지혜로부터 배우고, 성경을 전통, 이성, 경험, 초기 관점을 포함한 모든 것보다 더 높은 권위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을 따르면,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해석적 신학적 렌즈를 아주 약간이라도 조정할 수 있다는 매우 현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이는 개선된 신학적 관점과 증가된 해석적 정확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은 신학적 관점과 점점 더 발전되고 건전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개선도 없는 악순환인 해석적 순환을 가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악순환적 해석적 순환은 사람을 혼란, 주관주의, 불확실성으로 이끈다. 신학에 대한 성경적 해석에 대한 건전한 접근 방식에서 해석적 나선형이 있는데, 이는 그랜트 오스본의 책에서 따온 것이다.

에서조차 , 우리의 악기가 아무리 조율이 틀렸더라도, 우리는 표준에 따라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율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성경에 나타난 그의 자기 계시를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점점 더 우리 자신의 가정과 편견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주의 깊게 연구하고, 교회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신학은 성숙해지고, 점차 진리를 향해 나선을 그리며 나아갑니다.

교회사에서 윌리엄 틴데일의 목소리를 생각해 봅시다. 틴데일의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는 1494년경에 태어나 1536년경에 순교했습니다. 그는 영국의 학자이자 주요 종교 개혁 인물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용문, 인용문, 나는 쟁기를 몰고 다니는 소년이 교황보다 성경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할 것이다. 인용문 닫기. 1536년, 그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당했습니다. 틴들 성경은 영국에서 종교 개혁 사상을 퍼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틴데일이 신약성경을 주석으로 번역한 동기는 무엇일까요? 인용문, 저는 경험을 통해 성경이 모국어로 그들의 눈앞에 명확하게 놓여 있지 않으면 평신도들에게 어떤 진리도 확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문의 과정, 순서, 의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궁극적으로 목숨을 바쳐서라도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사람들이 모국어로 성경에 접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좋은 신학의 기초는 성경 저자의 의도에서 시작하여 본문을 통해 성경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좋은 스터디 바이블, 성경 사전, 주석을 포함하여 그러한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유용한 도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에는 ESV, Systematic Theology Stud

y Bible, NIV Zondervan Study Bible, 신학 용어의 간결한 사전 등이 있습니다.

구절을 연구할 때 우리는 특정한 문학 장르, 서사, 속담, 우화, 복음, 편지 등을 주목하고 그 장르에 적합한 문학적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학적 맥락도 중요한데, 주어진 구절의 배치는 성경 저자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어의 의미는 종종 주변 구절, 절, 문장을 연구하여 나타납니다.

문장의 의미는 문단이나 장면에 나타나고, 장면의 의미는 주변 에피소드, 섹션 또는 책 전체에 표면화됩니다. 역사적 배경도 형성적입니다. 텍스트의 상황, 수신자, 저자 및 교회 상황을 아는 것이 좋은 해석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도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학적 해석과 관련된 두 가지를 언급할 것입니다. 첫째, 때때로 독자들은 특정 주제나 교리를 찾는 데 너무 집중하여 거기에 없는 것을 구절에 읽어들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을 막는 열쇠는 먼저 구절을 읽고 전달하려는 내용을 읽은 다음, 누군가의 교리가 그 구절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고려하는 것입니다.

둘째, 독자는 저자가 신학적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지시하는 구절에만 실수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성경 저자는 신학적 신념과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쓴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특정 교리가 항상 주어진 구절의 주된 목표는 아니지만,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적절하게 따를 수 있도록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조점이 윤리적이고 신학이 윤리의 하부 구조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좋은 신학은 성경적 해석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또한 특정 교리를 갖기 위해서는 특정 단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오류의 개념을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교회 교리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교회 또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때때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르칠 때 교회에 대해 말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절은 교회 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단어의 용법이 있지만, 그는 또한 자신의 양을 사랑하고 양을 가지고 있는 선한 목자이며, 양 우리로 데려와야 할 다른 양들이 있습니다. . 제가 아는 한 요한복음 10장에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교회에 대한 말씀이 없는 교회 교리와 관련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개념을 갖기 위해 교회라는 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같은 맥락에서, 단어 개념 오류를 저지르며 요한 복음은 선거나 예정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선출, 선거, 예정,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은 선거나 예정의 교리를 묘사하는 세 가지 주제를 사용합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십니다 .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는 그 개념을 네 번 읽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신성한 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9절만이 아들 을 선택의 창시자로 만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요, 너희의 열매가 남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6:66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 열두 제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라 하신 것처럼, 이것을 제자가 되기 위한 단순한 선택으로 볼 수 없겠습니까? 예수님의 선택은 구원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선택은 예수님께 속하고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요한복음 6장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중 한 사람은 유다를 언급하면서 마귀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선택은 구원을 위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선택된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십니다. 아들은 요한복음 15:16과 19에서 선거의 저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이전 또는 선행 정체성입니다.

보통 요한은,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내 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예수가 말할 수 있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는 그것을 뒤집어서, 당신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10장에서, 그들이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며,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들이 있는데, 그들이 믿거나 믿지 않기 전에 나는 그들을 염소라고 부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 구원받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생각 도 있고 , 그들이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은 양이나 염소로서의 선행 또는 사전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요한 자신의 복음은 특정 교리를 가르치려면 특정 단어나 단어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오류를 보여줍니다. 요한은 선거와 선택, 예정과 예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아들에게 주는 세 가지

이미지, 아들이 선거의 저자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행 정체성과 함께 선거 교리와 관련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DA 카슨, 그것은 방대한 책임입니다. 신성한 주권과 인간의 책임, 긴장 속의 성경적 관점.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좋은 신학은 성경 해석에 기초합니다. 궁극적으로 성경 신학에서 모든 성경 구절의 맥락은 특정 책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이기도 하며, 이는 성경 본문을 창조와 타락에서 구원과 새 창조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전개되는 계획에 놓입니다.

이 성경적 스토리라인은 교리를 구성하고, 정리하고, 연결합니다. 나아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절정에 달하는데, 이는 복음서들, 히브리서 1장 1~4장 앞과 뒤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 스토리라인 내에서 구절을 찾고 또한 그 주제에 대한 다른 구절과 연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의 성경적 언약, 특히 율법, 선지자, 기록, 그리고 신약성경의 새 언약, 특히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 요한계시록을 통해 성경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봅니다.

우리의 주의는 우리가 연구하는 특정 교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각 책의 중심 주제와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인 언약, 왕국, 속죄, 영광, 사랑, 거룩함 등에도 쏠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하는 교리와 이러한 주제 및 기타 주요 주제의 연결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리를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 비례적으로 그리고 그 관계에서 이해하고 종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신학은 성경 해석에 기초하고 성경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당신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믿느냐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예'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성경 이야기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타락 전 아담과 이브의 자유의지와 타락 후의 자유의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의지의 자유도 다릅니다.

그리고 분명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는 의지의 자유가 다릅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선택의 자유 그 이상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타락하기 전에 둘 다 가졌습니다. 선택의 자유이자 인류에게 끊임없는 동반자이며 또한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들은 신을 알고,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들이 왜 타락했는지는 신비하지만,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인간이 항상 가지고 있는 선택의 자유를 유지했지만, 도덕적 자유와 신을 사랑하고, 섬기고, 구원의 은혜와 별개로 신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물론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도덕적 자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합니다 .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후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만 우리는 양도할 수 없는 선택의 자유를 가질 것입니다. 또한 가장 충만한 의미에서 참된 자유를 가질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의 전형은 반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조, 타락,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때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의지의 자유와 자유 선택을 고려하는 성경 신학이 의지의 자유라는 개념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예가 있습니다. 역사 신학. 우리의 경향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개인적으로 읽고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더 잘 따르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해석 과정에서 교회와 교회 역사의 중심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의 역사적 해석자였습니다. 역사적

교회의 가르침과 신조가 성경만이 그러하듯이 신자들에게 권위를 행사하지는 않지만, 스크립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석에 대한 현대적이고 탈현대적인 접근 방식은 때때로 개별 해석자, 현대적 또는 동시대적 독자 커뮤니티, 탈현대적, 역사적 교회 가르침을 희생하여 강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은 최초의 사람은 아니지만,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의 흐름 속에 서 있으며 교회 역사, 교회 역사의 주요 사상가, 즉 아타나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즈, 존 웨슬리의 역사적 신학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주저함을 가지고 교회의 역사적 사상 흐름에서 벗어나야 하며, 신성한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의해 신학적으로 확신될 때에만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을 현재 교회 공동체의 맥락에서 읽어야 하며, 성경이 다른 신자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좋은 신학은 역사적 교회 가르침과 함께 그리고 함께하는 삶에서 교회에 의해, 교회와 함께, 교회를 위해 행해집니다. 체계적 신학은 성경 해석, 성경 신학, 역사 신학에 대한 우리의 작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우리는 신학적 종합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성경적 주제를 통합하고, 중심적인 신학적 주제를 다루고, 교리들 간의 우선순위와 상호 관계를 보여주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신학은 성경적 스토리라인, 즉 창조, 타락, 구원, 새 창조에 비추어 가장 잘 구성되고 전달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신학을 상황에 맞고 명확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스토리라인을 고려할 때, 특히 체계 신학에 적용하면, 그것은 창조, 타락, 구원, 새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 계시, 창조, 인간, 타락,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 구원, 교회, 그리고 마지막 것들입니다. 실천적 신학 적용. 우리가 말한 것은 우리의 역사적이고, 우리의 신학적 방법은, 실례합니다, 성경 해석, 성경 신학, 역사 신학을 포함하며, 모두 체계 신학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실천 신학/응용이 포함됩니다. 신학은 교회에서 실천되기 전까지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신학을 사용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 삶 전체를 개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래 목적에 비추어 현대 교회에 성경적 진리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랑, 믿음, 기도, 전도, 제자도, 교제, 사역, 예배, 결혼, 육아, 우정, 환대, 용서, 재정, 설교, 가르침, 선교, 교회 계획 등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은 그러한 적용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신학은 우리 각자와 교회 전체를 존재, 사랑, 사고, 믿음, 추종의 명백한 방식으로 부릅니다. 성경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모든 기독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것에서 파생되었고, 그것에 의해 정의되었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선과 그의 영광을 위해 살고, 사랑하고, 섬기는 동안 그것의 확장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세부 사항을 고려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와 성경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4, 하나님을 아는 것과 신학의 근원입니다.